

제주유배문화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을 중심으로 -

Textile Design using exile culture in Jeju Island

- Focused on the formative characteristics of Chusa Kim Jung-Hee's Seal engraving -



주저자 : 현명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시간강사

Hyun myung-kwan

Jeju National university

교신저자 : 장애란

제주대학교 의류학과 교수

Jang ae-ran

Jeju National university

1. 서 론

2. 이론적배경

- 2.1. 전각의 개념
- 2.2. 제주유배시기의 추사 김정희의 시·서·화의 조형적 특성
- 2.3.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

3.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 3.1. 고졸성(Antiqueness)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 3.2. 절주성(Rhythmicity)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 3.3. 절제성(Moderation)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 3.4. 구상성(Concreteness)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4. 결 론

참고문헌

논문요약

본 논문은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주의 유배문화의 다양한 활용 방안으로써, 추사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을 개발하는데 있다.

조선시대 이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망·유배지인 제주는 타 지역과 달리 지리적·문화적으로 독특한 유배문화가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제주유배 환경하에서 완성된 김정희의 시·서·화와 전각의 조형적 특성(고졸성, 절주성, 절제성, 구상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제주 문화 관광 상품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텍스타일 디자인의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유적지로서의 유배지보다는 제주도적인 브랜드화 된 유배문화콘텐츠를 통해 제주유배문화의 가치를 알리는데 그 의미를 부여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추사김정희의 전각에서 도출한 조형성을 응용한다면 앞으로 다양한 제주유배문화상품 및 패션 디자인 상품 개발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추사, 전각, 고졸성, 절주성, 절제성, 구상성, 텍스타일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develop textile design based on the formative features of Chusa Kim Jung Hee's seal engraving, as a way of using exile culture in Jeju Island in various ways.

Jeju Island, the representative place of exile, since the advent of Joseon Dynasty, developed a unique geographic and cultural exile culture distinctive from other areas. Motives of textile design are developed to enhance the applicability of cultural and tourism products based on the results of analysis on Kim's poem, calligraphy, and painting completed in Jeju Island as well as formative features of his seal engraving, including antiqueness, rhythmicity, moderation, and concreteness. It was devised to impart new values of exile culture to Jeju Island through the intrinsically re-branded exile culture contents of this exotic island rather than merel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storytelling contents of local culture.

Provided that the formativeness derived from Chusa Kim Jung Hee's seal engraving is applied, it is likely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various products of exile culture in Jeju Island and of fashion design.

Keyword

Chusa, Seal engraving, Antiqueness, Rhythmicity, Moderation, Concreteness, Textile

1. 서론

이조시대에 형벌제도로 사형, 유배형(또는 유형), 도배형, 장형, 태형이란 5형제도가 있었다. 이 중 유배는 죄인을 먼 지역에 갇숙이 가두어 종신토록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었다. 즉, 유배는 중죄를 범한 자에게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멀리 추방해 일생동안 귀환하지 못하게 하는 형벌이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배를 권력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역사로만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유배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처참한 형벌이기도 하지만 창조와 완성의 공간이기도 했다. 이러한 창조와 완성의 공간인 유배지 제주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망·유배지로 등장한 것은 조선시대 이후이다. 다시 말해서 유배제도의 기원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삼국사기의 기록으로 보아 삼국시대부터 행해졌을 것이며, 본격적으로 제주도가 유배지로 이용된 것은 사화와 당쟁 등의 정치상황이 주를 이루던 조선시대부터였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 4,000여 명 중 700여명이 유배형을 경험하였고, 그 중 제주에 유배되었던 사람의 수는 대략 200여 명으로 추정된다(양진건, 1999)는 기록에서 알 수 있듯이 관직에 오른 사람이라면 아마도 유배 길에 오르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라는 사실로 보아 조선시대 유배는 지식인의 통과례였던 것이다.

조선시대 법전인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제주에는 죄명이 특히 중한 자가 아니면 유배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명시된 것으로 보아, 제주는 큰 죄를 지은 중죄인의 유배지였다. 제주의 유배인은 섬에 가두는 절도안치(絶島安置)와 가시나무 울타리로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위리안치로 구분되어 유배형을 살아왔지만, 제주에 도착하면 오히려 자유로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런 자유로움은 유배인들로 하여금 제주에서 독특한 유배문화를 조성하게 만들었다고 본다.

예를 들면, 제주 5현으로 추앙받고 있는 유배인 중 충암 김정(중종), 우암 송시열(숙종), 동계 정온(광해군) 등은 제주의 지식인 사회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 외에 인목왕후의 어머니 노씨 부인은 제주 최초의 여성 유배인으로 술, 모주를 빚었고, 한말 대표적인 지식인 김윤식은 유배인들과 제주인이 참가하는 시회(詩會) ‘굴원’을 주도해 제주의 문화운동을 부흥시켰다.

또한 추사 김정희는 제주에서의 유배생활 9년 동안 학문 활동과 제자를 양성하는데 힘쓰는 한편 유배

지 풍경을 담은 ‘세한도’와 유배생활의 산물인 추사체를 완성했다. 이와 같이 조선시대의 제주 유배인들은 그들이 겪은 일과 감정 등을 문학화한 작품들을 만들었으므로 “제주유배문화”를 정착시켰음을 알 수 있다.

이는 16~17세기 제주도의 풍속, 생활, 신앙, 관원의 횡포 등과 유배적 상황에 직면한 유배인의 감정이 잘 기록된 “제주풍토록(濟州風土錄)”과 “제주풍토기(濟州風土記)”에서 발췌할 수 있다(한창훈, 2000).

추사 김정희의 한글 서간은 개인의 신병이나 감정뿐만 아니라 부인과 아우의 건강에 대한 걱정, 유배생활의 모습 등이 함축되어 있으며, 한문 서간에는 유배 생활의 전모와 집안일에 대한 배려, 예술관, 시·국·관 등이 잘 반영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유배문화와 관련된 선행연구 및 활용도를 살펴보면 단순한 자료 발굴 및 정리 등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대부분이다.

최근에 비로소 제주유배문화의 다양한 활용 방안으로 게임·영화·관광자원 등의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이 활발히 진행 중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제주유배시기에 완성된 김정희의 시·서·화와 전각의 조형적 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를 근거로 텍스타일 디자인(문양을 중심으로)으로 활용 가능한 모티브를 개발하여 제시함으로써 일종의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의 방향을 모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글로벌 문화로써의 유배문화 콘텐츠화는 물론 제주문화 관광 상품으로써의 활용가능성을 높이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선행연구(양순필, 1992; 양진건, 2001; 김동전, 2001)에 의하면, 추사 김정희는 다른 유배인들(보통 1년 이내)보다 긴 9년이란 장기적 유배생활을 함으로써 조선시대의 정책을 비판하였던 유배인들과 현지인들이 교류하면서 선비정신인 유교문화의 의미가 함축된 제주유배문화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고범석·염미경, 2005).

특히 제주도 유배시기동안 추사 학문과 예술이 완성되는 시기(최완수, 1985)로, 추사는 전각에 있어서도 일찍이 청(淸)의 학자들과 교류를 하면서 인(印)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체득하였고, 고인(古印)의 인보(印譜)를 통해 진(秦)·한대(漢代)의 전각을 연구하였다. 이를 계기로 그의 전각은 청대(淸代)보다 우월한 진경(眞境)을 스스로 닦게 되었으며, 점차 그 독특한 전각풍을 이룩하면서 전각을 예술의 영역으로 인식하

게 됨으로서 한국전각사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해 주었다(김응현, 1981). 그의 인영(印影)은 <근역인수>에 63과(顆)와 장서각(藏書閣)에서 발굴된 <완당인보(阮堂印譜)>에 107과(顆)가 있으며, 추사의 제주 유배 시절 제자인 박혜백(朴惠百)이 완당의 소장인장을 직접 찍어 만든 <완당인보>에 180과(顆)가 있다. 이들 인보에 있는 인장을 모두 추사가 각인(刻印)한 것은 아니지만, 그 중에는 중국 청대의 전각가를 비롯하여 추사 제자들의 각(刻)한 것과 자각(自刻) 등이 혼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2.1. 전각의 개념

전각이란 낙관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다. 낙관이란 낙성관지(落成款識)의 줄임말로 낙관낙인(落款落印)이라고도 한다. 서화(書畵)를 마무리한다는 의미로 작품 완성 뒤에 관지를 하고 작가의 도장을 찍는 행위를 이르는 말이며, 이때 사용되는 도장을 전각이라 한다. 전각은 돌, 나무, 옥, 금속 등의 작은 공간면에 글자를 조형적으로 배열하여 칼로 새기는 것으로, 인(印)이라는 한정된 세계에 사람의 정성을 조각하는 동양 예술의 극치이자 독자적 장르인 순수예술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전각은 서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금석학에 대한 지식을 기본으로, 대부분은 한자 서체 중의 하나인 전서(篆書)를 주로 새긴다. 이는 전서가 조형성이 가장 풍부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전서(篆書)를 새긴다(刻)는 뜻으로 전각이라고 하게 된 것이다(정병래, 2000).

전각의 쓰임새는 처음에는 관리를 임명하면서 관직을 표시하고 구분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으나 그 용도가 점차 확대되어 개인의 소유물을 표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면서 보편화되었다. 특히 서화 작품에 있어 작품을 완성하는 마지막 날인의 용도로 사용되면서 작품을 완성한다는 의미, 그 완성에 예술성을 가미하는 효과, 감정인과 소장인을 밝히는 증거로써의 의미 등 중요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따라서 전각은 실용적 쓰임새는 물론 예술성을 중시하는 단계로 이행되었으며, 이러한 전각은 제작자의 능력에 따라 동서고금의 각종 서체는 물론 다양한 문양 및 인간의 폭넓은 감성 등을 접목시킨 예술의 한 분야로 발전하게 되었다(허희태, 2008).

전각의 종류는 범위가 매우 포괄적이어서 형식이나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즉, 전각의 용도에 따라 성명, 아호, 사구, 수장, 초형, 봉니, 관인, 감상 등으로 나눌 수 있고, 전각의 위치에 따라 두인, 유인, 성명, 자호인으로 나눌 수도 있다. 그리고

전각인문의 내용에 따라 성명인, 호인, 주소인, 성씨인, 사구인, 초형인으로 나누거나, 전각의 표현방법에 따라 백문인(음각인), 주문인(양각인), 주백문상간인(음양각)으로 나눌 수도 있다(조성주, 2002)[그림 1].



[그림 1] 전각의 종류(출처 조성주 전각실습 2002)

전각의 조형적 특성은 크게 두 측면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즉, 전통적인 전각에 있어서 문자의 선택과 구성, 자법과 장법을 통한 공간성이다. 그리고 서선의 굵기·점획의 대소·대소 글자의 배치·부수의 위치·바꿈·점과 획의 단순화 등이 전각에서만 볼 수 있는 가장 큰 조형적 특성이다.

먼저 전각의 공간성이라 할 수 있는 여백에 대해 살펴보면, 동양미술에서의 여백은 단순히 그리거나 채색되어 있지 않은, 마치 그리다 만 것처럼 보이는, 비워둔 부분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여백에는 철학적 사상과 미학적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남미숙, 2009). 다시 말해서 그림에서의 여백은 화면에 여유와 편안함을 줄뿐만 아니라 운치와 여운을 남겨주는 동시에 배경이 채워진 것보다 오히려 더 많은 의미를 암시적으로 표현해 준 것이다.

이처럼 전각에서도 단순히 글자를 새기는 것이 아니라 글자의 여백을 인위적으로 설계하여 자유로운 내면세계와 자연의 이치를 나타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전각에 있어서의 여백은 전각가의 내면을 나타내는 중요한 조형의지의 표현이면서 감상자에게는 산수화의 한 폭처럼 자유로운 운치를 더해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전각을 구성하는 글자 표현기법에 대한 조형적 특성을 살펴보면, 화면에서의 생동감과 변화

는 막연하게 칼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선 하나마다의 방향, 굵기와 속도에 의해 달라진다. 즉, 전각은 칼로 새긴 것이기에 연필이나 모필로 표현된 미와는 다른 파흔(波痕)에 의한 고졸한 미가 표현된다. 파흔은 서각이나 전각작품에서 아주 특별한 미적 감흥을 느끼게 하는 표현기법으로, 돌이나 나무 등의 재료에 따라 다른 모양으로 표현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일도(一刀)로 인한 우연적인 파흔, 혹은 작가의 의도적인 깨드림에 의해 표현된 파흔은 고졸미와 더불어 아름다운 자연미가 느껴진다.(김혜란, 2009).

2.2. 제주유배시기의 추사 김정희의 시·서·화의 조형적 특성

선행연구(이호순, 2004; 고연희, 2003; 황지원, 2005)에 의하면, 제주유배시기에 제작된 추사 김정희의 시·서·화의 형태는 다르지만 심의는 동일한 묘경(妙境)의 일치(민족문화추진회, 1995)를 이루기 때문에 각 영역이 서로 소통하고 합일하여 독창적인 문인화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시·서·화의 공통된 미감 요소에서 ‘고졸미(古拙美)’, ‘문자향(文字香)·서권기(書卷氣)’, ‘중화미(中和美)’, ‘금석기(金石氣)’, ‘법고창신(法古創新)’ 등의 조형적 특성을 도출할 수 있다.

고졸미(古拙美)는 서툰 듯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미로, 추사는 고예(古藝)에서 드러나는 고졸미를 추구하였다. 추사에게 고졸미는 학문적 존고정신과 부단한 노력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그 자연스러움과 꾸밈없음은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고 스스로를 낮추어 생기는 미감이라 할 수 있다.

문자향(文字香)·서권기(書卷氣)는 예술에 있어 ‘학예일치사상’을 피력한 것으로, 예술에서 학문과 인격의 겸비를 추구한 것이다. 추사에게 문자향·서권기는 ‘세한도(歲寒圖)’에 잘 나타나는데 그림의 필선은 마르고 담박, 즉 고담하고 간결한 아름다움이 마치 뜻이 높은 선비인 고사의 인격을 대하는 듯하여 심품이라고도 한다.

중화미(中和美)는 인간과 예술에 균제감과 질서를 부여하는 것으로, 타고난 성격을 학문으로 다스려 대자연의 원리를 따르게 하는 것이다. 추사에게 중화미는 글씨의 중획과 횡획의 파격적 차이를 통해 조형상의 음양 구조의 조화와 통일로 이루어졌다.

금석기(金石氣)는 북비(北碑)의 굳세고 장엄한 미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금(金)’은 옛 동기인 종과 술 위에 주조한 문자이고 ‘석(石)’은 비갈에 새긴 글씨로서 모필을 사용하여 쓴 글씨를 주조하여 새겨 나온

글자처럼 질박하고 고졸한 기식을 갖춘 것을 가리킨다. 추사체와 문인화의 필체가 마치 금석을 깎아 놓은 듯 직선적이고 간결한 것은 이러한 금석기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고창신(法古創新)은 옛것을 근원으로 삼아 문인화에 독특한 질서를 찾아낸 것으로, 제주도 유배시기 작품에 자유분방함과 ‘괴(怪)’의 요소가 표현된 것이다. 추사는 법고를 모범으로 삼되 법고의 장점과 법의 뜻을 안다면 더 이상 그에 얽매이지 말고 창신을 추구해야 한다는 보다 발전된 실사구시적(實事求是) 미의식을 강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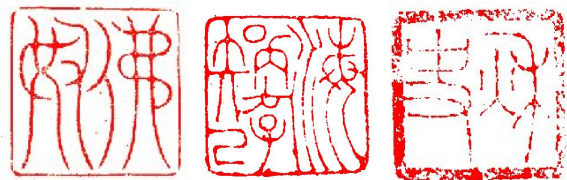
2.3.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

추사 김정희의 전각은 대체로 이름은 음각, 호는 양각 새김을 하고 있다. 그러나 이름을 예외적으로 양각으로 서각한 경우와 호임에도 음각으로 서각한 경우도 있다. 그 외에 거의 정사각으로 다듬은 면에 서각한 반면, 자연석의 외곽선을 그대로 살리거나, 자연스럽게 외곽선을 만들어서 서각한 경우 등 다양한 전각들을 볼 수 있다.



[그림 2] 추사 전각의 고졸미(출처: 유홍준, 완당평전 3, 2002)

[그림 2]의 전각들은 서툰 듯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느낌과 투박한 듯한 서체의 모양에서 옛스러움과 기교를 넘어서는 자연스러움을 나타낸 것으로 보아, 추사의 시·서·화의 조형적 특성인 고졸미와 유사함을 유추하였다.



[그림 3] 추사 전각의 문자향·서권(출처: 유홍준, 완당평전 3, 2002)

[그림 3]의 전각들은 글자 고유의 모양이라기보다는 추상적인 표현으로 조형성을 강조하였으며, 면의

표현이라기보다는 선적(線的)인 표현을 통해 리듬감, 여백과의 균형과 대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추사의 시·서·화의 조형적 특성인 문자향·서권기와 유사함을 유추하였다.



[그림 4] 추사 전각의 중화미(출처: 유홍준, 완당평전 3, 2002)

[그림 4]의 전각들은 강함과 섬세함이 함께 표현된 것으로, 절제와 한도의 조화와 통일을 보여주고 있다. 아울러 굵은 선이나 면적으로 차분하고 온화함을, 기조 아래의 가는 선과 면적의 대비를 통해 섬세함을 함께 나타낸 것으로 보아, 추사의 시·서·화의 조형적 특성인 중화미와 유사함을 유추하였다.



[그림 5] 추사 전각의 금석기(출처: 유홍준, 완당평전 3, 2002)

[그림 5]의 전각들은 직선적인 표현을 통해 간결함과 단정함을 보여주고 있다. 단순한 표현은 순수함은 물론 단단함도 함축되어 있어서 장엄함마저 나타낸 것으로 보아, 추사의 시·서·화의 조형적 특성인 금석기와 유사함을 유추하였다.



[그림 6] 추사 전각의 법고창신(출처: 유홍준, 완당평전 3, 2002)

[그림 6]의 전각들은 글자 본연의 모습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다. 이는 정확한 형상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이게 표현함으로써 옛것에 토대를 두되 그것을 변화시킬 줄 알고 새것으로 만들어 가되 근본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계승과 혁신의 미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추사의 시·서·화의 조형적 특성인 법고창신과 유사함을 유추하였다.

따라서 추사 김정희의 시·서·화의 조형적 특성을 근거로 전각들의 특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단순미와 자연미로써의 고졸성(Antiqueness), 균형과 대비·리듬감·선적(線的)인 미로써의 절주성(Rhythmicity), 절제와 한도·조화와 통일·강함과 섬세함의 미로써의 절제성(Moderation), 현실적·구체적·사실적인

시서화의 조형적 특성		전각의 조형적 특성	전각모양	조형성
고졸미(古拙美)	서툰듯한 자연스러움 옛스러움	단순미, 친근감, 기교를 넘어선 자연스러움		고졸성 (Antiqueness)
문자향(文字香)· 서권기(書卷氣)	여백의 미, 정신적 경지 은은한 품격 화려하지 않은 색상	추상적, 선적(線的), 조형성, 리듬감, 균형과 대비		절주성 (Rhythmicity)
중화미(中和美)	감정과 이성의 결합, 양강과 음유의 조화, 형세가 온화하고 체세(體勢)고름	절제와 한도, 소박함 조화와 통일, 강함과 섬세함		절제성 (Moderation)
금석기(金石氣)	주조 글자처럼 질박하고 고졸한 기식, 장엄미 역사미와 시간미	간결함, 순수함, 직선적, 단정함, 함축적		구상성 (Concreteness)
법고창신(法古創新)	계승과 혁신의 미 정확한 형상 묘사	현실적, 구체적, 사실적		

[표 1] 추사 김정희 전각에서 유추한 조형성

미로써의 구상성(Concrete-ness)등의 조형성을 도출하였고[표 1], 그 결과를 응용한 문양중심의 텍스타일 디자인 모티브를 개발하였다.

3.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을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3.1. 고졸성(Antiqueness)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인 고졸성을 텍스타일 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단순미와 자연미가 함축된 모티브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전각 원본을 중심으로 이를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전각 원본은 전각을 중심으로 4등분된 각각의 글자는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자연그대로의 느낌과 투박해 보이는 서체의 모양으로 음각되어 있다.

1-1의 모티브는 전각 원본의 글자 중 좌측 상단의 글자 모양을 그대로 표현함과 동시에 회전과 반전방법을 통해 양각과 음각으로 단순화하여 변형시켰다. 이 모티브를 45° 회전시켜 기본 반복 단위(one repeat)로 재구성하고 리피트의 사각형 외곽선에 맞추어 다시 배열하여 단순하면서도 서툰 듯 자연스러운 느낌의 패턴으로 전개하였다.

1-2는 전각 원본의 글자 중 상단 좌·우측의 세부 모양 중 두 가지를 조합의 방법으로 접목시켜 기교적

이지 않은 친근한 느낌의 투박하면서도 자연스러운 느낌의 기본 반복 단위로 재구성하였다. 리피트 단위는 중앙부분에 원모양 도식화를 배치하고 상좌우 네 방향으로 줄기모양의 문양을 배치한 후 45° 회전시켜 마름모 모양으로 반복한 후 네 개의 작은 원을 잇는 사각형 모양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 리피트 단위를 연속 배열하여 패턴으로 전개하였다.

1-3은 전각 원본의 글자 중 상단 좌측의 단순하면서도 투박한 듯 자연스러운 글자 모양을 그대로 표현함과 동시에 반전과 회전방법을 통해 전체적으로 둥근 모양을 이루는 모양으로 단순화하여 변형시켰다. 이 리피트 단위를 연속 배열함에 있어 양각과 음각의 모양으로 재구성하여 전통적 문양의 느낌을 이어받은 듯, 예스러움을 느낄 수 있게 패턴화 하였다.

3.2. 절주성(Rhythmicity)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인 절주성을 텍스타일 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균형과 대비·리듬감·선적인 미와 문자향·서권기와 중화미가 함축된 모티브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전각원본을 중심으로 이를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전각원본은 전반적으로 여백을 많이 드러내고 있으며 리듬감 있는 곡선으로 강한 듯 섬세한 표현으로 양각되어 있다.

번호	문양원본	모티브	리피트	패턴
1-1				
1-2				
1-3				

[표 2] 추사 전각의 고졸성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번호	문양원본	모티브	리피트	패턴
2-1				
2-2				
2-3				

[표 3] 추사 전각의 절주성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2-1의 모티브는 전각 원본의 글자 중 우측 상단의 글자 모양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선적인 느낌을 최대한 살리면서도 리듬감 있는 곡선으로 단순화하였다. 이 모티브를 상하좌우, 대칭으로 기본 반복 단위로 재구성하고 배열하여 선 자체의 미와 바탕 여백의 미가 서로 균형과 대비를 이루도록 패턴화 하였다.

2-2는 전각 원본의 글자에서 우측 상단의 글자를 이루는 모양 중 삼지창 모양과 좌측 상하단의 원 모양 두 가지를 조합하여 문양화 하였다. 삼지창 모양을 상하좌우로 반복 회전하여 배열한 후 각 네 방향의 귀퉁이에 원을 위치시킨 후 전체적으로 45° 회전시켜 네 개의 원을 잇는 사각형 모양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 리피트 단위를 연속 배열하여 여백의 미를 최대한 살리고 균형 잡힌 곡선과 직선의 적절한 반복 패턴으로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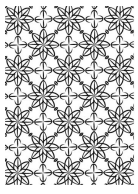




2-3은 전각 원본의 글자에서 우측의 글자를 이루는 모양 중 ‘화(火)’자를 있는 그대로 표현함과 동시에 반전과 회전방법을 통해 재구성함으로써 선의 반복을 통한 리듬감이 느껴지도록 표현하였다. 전체적으로 직선과 사선으로 단순화하여 반복되었을 경우 리듬감이 느껴지고, 이러한 리듬감이 직선적인 느낌을 곡선적인 느낌이 나도록 보여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최대한 리듬감이 표현된 리피트 단위를 양각의 모양으로 연속 배열하여 패턴화 하였다.

3.3. 절제성(Moderation)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인 절제성을 텍스트 타이 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절제와 한도·조화와 통일·강함과 섬세함·간결함의 미와 중화미와 금석기가 함축된 모티브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전각원본을 중심으로 이를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전각원본은 전반적으로 음각과 양각의 절제와 한도가 잘 드러나며, 이를 통해 강함과 섬세함이 잘 조화됨을 알 수 있다.

3-1의 모티브는 전각 원본의 글자 중 좌측 상단의 양각 글자 모양과 우측 상단의 음각 글자모양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음양의 조화를 나타내려 하였다. 이와 함께 전각 원본 테두리의 양각과 음각이 공존하는 모습을 바탕으로 대각선으로 서로 대칭되게 절제된 변형을 이루도록 표현하였다. 이 모티브를 다시 반전과 회전하여 배치시킴으로써 선과 양각은 섬세함을, 면과 음각은 강함을 간결한 기본 반복 단위로 재구성하고 이러한 리피트를 반복 배열을 통

번호	문양원본	모티브	리피트	패턴
3-1				
3-2				
3-3				

[표 4] 추사 전각의 절제성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해 패턴화 하였다.

3-2는 전각 원본의 글자 중 중앙의 나무목(木)자 모양을 기본 모티브로 하여 섬세한 선의 느낌을 45°로 반복 회전을 통해 순수한 꽃모양으로 조합하여 간결한 느낌으로 문양화 시켰다. 이 모티브의 리피트 단위는 중앙부분에 원모양 도식화를 배치하고 상하좌우 네 방향으로 줄기모양의 문양을 배치한 후 45° 회전시켜 마름모 모양으로 반복한 후 네 개의 작은 원을 잇는 사각형 모양으로 변화를 주었다. 이 리피트 단위를 연속 배열하여 패턴으로 전개하였다.

3-3은 전각 원본의 글자 중 좌측 하단의 음각으로 새겨진 글자 모양을 양각의 느낌으로 간결하게 표현하였다. 또한 음각으로 표현함으로써 바탕의 강함과 글자모양의 섬세함과 간결함이 잘 나타나도록 하였다. 이 모티브를 기본 반복 단위로 재구성함에 있어 간결함에 섬세함을 더하기 위해 전각 원본의 음각의 느낌으로 표현하여, 여기에 음각으로 표현되어진 면의 느낌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직선의 느낌을 더한 리피트를 반복함으로써 패턴화 하였다.

3.4. 구상성(Concreteness)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적 특성인 구상성을 텍스트 타이 디자인에 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 현실적·구체

적·사실적·직선적인 미와 금석기와 범고창신이 함축된 모티브 디자인을 개발하였다. 전각원본을 중심으로 이를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과정을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전각원본은 전반적으로 글자 자체를 읽을 수 있게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으며, 직선적인 느낌은 단단함이 함축되어져 있는 듯 양각되어 있다.

4-1의 모티브는 전각 원본의 글자 중 상단의 삼각형 모양의 글자를 기본 모티브로 반복과 회전을 통해 삼각형의 한 변과 한 꼭짓점이 살짝 중첩되게 표현하여 기본 단위로 재구성 하였다. 이 리피트의 사각형 외곽선에 맞추어 배열하여 전각 원본의 직선적인 느낌을 물결모양의 구체적이고 정확한 형상으로 묘사되게 패턴화 하였다. 또한 직선의 반복과 회전을 통해 곡선의미를 보여줌으로써 기존에 대한 계승과 이를 통한 혁신의미를 보여준다 하겠다.

4-2는 전각 원본의 4등분된 글자들 중 우측 상단의 '金'자를 사실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그대로 표현하였다. 이 모티브를 상하좌우 각각 45° 반복 회전시켜 직선적인 느낌의 양각 글자를 리피트 단위로 연속 배열하여 패턴화 시켰다. 이 리피트단위는 네 방향으로 뻗은 직선의 모양이 합쳐져 풍차의 날개 모습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적인 글자에 동적인 움직임을 부여하였다.

4-3은 전각 원본의 4등분된 글자 중 상단 좌측의 '正'자를 구체적인 글자 모양 그대로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이를 기본 모티브로 하여 45° 반복 회전시켜

마름모 모양 안에 4개의 '正'글자가 놓이게 하고 전각 테두리를 형상화한 바깥테두리를 3번에 걸쳐 크기를 조절하여 감싸게 하여 정리함으로써 직선적이고 사실적인 느낌을 부여한 리피트를 반복 배열함으로써 패턴화 하였다. 또한 리피트의 바깥테두리가 패턴화되면서 선의 느낌은 면의 느낌으로 바뀌어 보이며 이는 곧 양각의 느낌이 음각의 느낌으로 전환됨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선의 느낌과 면의 느낌이 한 패턴에 함축되게 표현됨으로써 음각과 양각의 조화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문화로써의 제주유배문화의 정착 및 활성화하기 위해 유배문화의 콘텐츠화는 물론 제주문화 관광 상품으로써의 활용가능성을 높이고자 추사 김정희의 시·서·화의 조형적 특성과 전각의 조형성을 비교분석한 후 도출된 고졸성(Antiqueness), 절주성(Rhythmicity), 절제성(Moderation), 구상성(Concreteness) 등의 조형성을 토대로 텍스타일 디자인을 위한 모티브디자인을 개발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졸성을 활용한 모티브디자인은 단순미와 자연미를 최대한 살려 서툰 듯한 자연스러움을 통해 친근하고 기교는 없으나 전통적인 느낌을 계승한 듯한 옛스러움을 표현하였다.

절주성을 활용한 모티브디자인은 전반적으로 여백과 선과의 균형적인 표현과 아울러 여백의 미와 선의 반복을 통해 리듬감을 표현하였다.

절제성을 활용한 모티브디자인은 면과 선, 양각과 음각, 직선과 곡선의 조화와 통일, 절제와 한도를 통해 강함과 섬세함을 표현하였다.

구상성을 활용한 모티브디자인은 구체적인 글자를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직선적인미를 최대한 살려 표현하되 직선이 갖는 간결함과 단정함을 계승하되 곡선이 갖는 동적인 느낌을 표현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추사 김정희의 시·서·화의 단순한 낙관으로서의 전각이라기보다는 예술과의 접목을 통해 표출될 수 있는 조형예술로서의 가치를 규명하였고, 더 나아가 제주유배지로서의 가치보다는 유배문화라는 특수성을 알리는데 의미를 부여하려고 한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서론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추사 김정희와 관련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는 단순한 자료 발굴 및 정리 등의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번호	문양원본	모티브	리피트	패턴
4-1				
4-2				
4-3				

[표 5] 추사 전각의 구상성을 활용한 모티브 디자인

대부분이기 때문에 다방면에 있어 비교분석을 하기 위한 자료 부재의 제한점이 있었다. 그러므로 현재 활발히 진행 중인 게임·영화·관광자원 등의 지역문화 스토리텔링 콘텐츠 개발을 통한 제주유배문화의 다양한 활용 방안의 결과들과 연계한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향후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성이 모티브 디자인의 영역에서 벗어나 다른 시각 요소들과 디자인 요소와의 다양한 결합과 상관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의 조형성을 통해 보다 나은 유배문화의 다양성을 연구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고자 한다. 또한 추사 김정희 전각의 조형성을 응용하여 개발한 모티브디자인을 토대로 다양하고 독창적인 제주유배문화 상품화뿐만 아니라 제주도적인 패션 디자인에도 모티브디자인의 활용도가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하며, 문화와 관광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사려된다.

참고문헌

- 고범석, 염미경 (2005). 제주유배문화유산의 교육적 활용을 위하여. 『교육과학연구 백록논총』, 7(1).
- 고연희 (2003). 서평: 추사김정희의 인생과 그 시대에 대한 논의들 - 유홍준 저, 『완당평전』/정병삼 외, 『추사와 그의 시대』. 『한국문화연구』, 4.
- 김동전 (2001). 조선시대의 제주사회: 유배문화와 방어유적. 『제주의 역사와 문화』, 2, 제주도 : (사)제주민예총.
- 김응현 (1981). 『한국의 미』. 서울 : 중앙일보사.
- 김혜란 (2009). 「전각의 조형성을 응용한 Nuno felt 소재표현」,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남미숙 (2009). 「전각의 조형성 고찰 및 지도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민족문화추진회 (1995). 『완당전집 1·2·3』. 서울 : 고전국역총서.
- 이호순 (2004). 추사 김정희의 시·서·화 연구 - 제주도 유배시기를 중심으로. 『현대미술연구소 논문집』, 17.
- 양순필 (1992). 『제주유배문화연구』. 제주 : 제주문화
- 양진건 (1999). 『그 섬에 유배된 사람들』. 서울: 문학과 지성사.
- 양진건 (2001). 유배문화와 제주도: 제주교육의 기저에 대한 이해를 위해. 『교육인류학연구』, 4.
- 유홍준 (2002). 『완당평전 3』. 서울 : 학고재.
- 정병례 (2000). 『삶. 아름다운 얼굴』. 서울 : 선.
- 조성주 (2002). 『전각실습』. 서울 : 도서출판 여송,
- 최완수 (1985). 『秋史實記 - 그 波瀾의 生涯와 藝術』 한국의 미 17. 서울 : 중앙일보사.
- 한창훈 (2000). 추사 김정희의 제주 유배기 인간과 그 문학적 성격. 『제주도연구』, 18(1), 4.
- 황지원 (2005). 추사 김정희 예술론의 철학적 근거와 예술사적 의미. 『범한철학』, 37(여름).
- 허희태 (2008). 『명언명시로 감상하는 전각예술』. 서울 : 도서출판 아름나무.